

小兒癩疹에 관한 文獻的 考察

金美志*·金璋顯**

* 東國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小兒科 專攻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I. 緒論

小兒癩疹은 『內經·四時刺逆從論』에서 “少陰有餘 病皮痺隱軫”¹¹⁾이라 하여 처음으로 언급되었고,巢는 “人皮膚虛爲風邪所折 折則生隱軫 寒多則色赤 風多則色白 甚者痒痛 搔之則成瘡”, “邪氣客於皮膚 復逢風寒相折則起風瘙隱軫 …… 隱軫身體爲痒”¹²⁾이라 하여 癩疹에 關係 具體的으로 提示하였다.

小兒癩疹은 皮膚之間에 隱隱하게 나타나 多痒 或不仁하는 것^{2,3,4,15,21)}으로 突然發生하였다가 迅速하게 없어지고 消退後에는 痕迹이 남지 않으며 隨出隨沒,을 反復하는 過敏性 皮膚疾患^{23~30)},으로 風瘙癩疹^{12,14,27)}, 風痞瘤^{12,14,27,28)}, 風疹疙瘡²⁶⁾, 風丹⁵⁾, 風疹塊^{23,24,26,28,30)}, 風尸²⁴⁾, 風矢²³⁾, 痞瘡瘡²⁴⁾이라고도 하며, 西醫學的으로는 蕁麻疹^{23,26,28,30)}, 두드러기^{6,7)}에 該當된다. 두드러기는 上部 眞皮의 毛細血管 擴張과 透過性의 增加에 의한 特徵的인 膨疹과 심한 瘙痒感이 나타나고 皮膚發疹은 반성홍반이나 丘疹으로 이루어져 있고 局所性 또는 全身性으로 나타나며 크기도 多樣하다.^{6,7)}

原因으로는 風^{12,13,14,20)}, 冷濕^{12,14)}, 風熱^{15,17,22)}, 風寒^{12,22)}, 寒^{12,13)}, 火^{16,19)}, 痰¹⁵⁾, 飮食物^{2,23,26,28)}, 藥物^{2,28)}, 寄生蟲^{2,23,26~30)} 등이 있으며, 稟賦不足^{23,24,26,29,30)}, 皮膚虛¹²⁾, 肌中熱^{12,14)}, 胃氣虛¹⁵⁾, 血虛^{20,4)}, 氣血兩虛^{23,27~30)} 등의 體質的인 素因과 聯關되어 癩疹이 발생하고 西醫學的인 原因으로는 藥物, 食品, 感染, 昆蟲, 物理的 要因, 全身性 遺傳性 疾患, 吸收性 吸入性 接觸性 抗原^{2,6,7)} 등이 있다.

두드러기는 全 人口의 20%以上에서 經驗하며, 慢性인 경우 90%以上에서 原因을 찾을 수 없으며^{6,7)}, 小兒의 約 15~40%에서 一生동안 적어도 한번이상은 經驗하는 比較적 發生頻度가 높은 非傳染性 皮膚疾患이다.¹⁰⁾

최근 金^{8,9)} 등의 報告에 의하면 癩疹에 대한 韓醫學的 治療의 有意性이 認定되므로 이에 著者는 小兒에게 多發하고 있는 癩疹에 關係 文獻的인 考察을 하므로써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論

1. 巢氏諸病源候總論¹²⁾

< 風瘙隱軫生瘡候 >

皮膚가 虛하면 風邪가 所折하니 折則生 隱軫한다. 寒이 많은 즉 色이 붉고 風이 많은 즉 色이 희며 甚한 것은 가렵고 아 뜨며 靨으면 瘡을 이룬다.

< 風瘙身體隱軫候 >

邪氣가 皮膚에 客하여 있는데 다시 風寒을 만나 相折한 즉 風瘙隱軫이 일어난다. 赤軫은 涼濕이 肌中極熱에 折한 것으로 熱結하면 赤軫을 이루니, 날씨가 더우면 심해지고 서늘하면 없어진다. 白軫은 肌中熱에 風氣가 折한 것으로 熱과 風이 相搏하면 白軫이 되고, 陰雨한 날씨에 심해지며 바람이 불어도 심해지고 맑고 따뜻한 날에는 없어지고 옷을 입어 따뜻하게 해도 나아진다. 脈은 浮하면서 洪하니, 浮는 風이고 洪은 氣強이므로 風氣가 相搏하면 隱軫이 나타나 몸이 가렵다.

< 風瘙痒候 >

이것은 風이 皮膚에 돌아다니기 때문이니, 寒을 만나면 身體가 疼痛하고 熱을 만나면 瘙痒한다.

< 風痒候 >

邪氣가 肌肉에 客한즉 肌肉이 虛해져 眞氣가 흠어지고, 또는 寒이 皮膚에 搏하면 腠理로 外發하여 毫毛를 막아 淫邪와 衛氣가 相搏하니, 陽이 勝하면 熱이 되고 陰이 勝하면 寒이 된다. 寒이 된즉 表虛해지고 虛한즉 邪氣가 往來하여 肉痒하게 된다. 무릇 痺之類이니 熱을 만나면 가렵고 寒을 만나면 아프다.

< 風痞瘤候 >

무릇 陽氣外虛한즉 多汗하고 汗出時 바람을 쐬어 風氣가 肌肉에 搏하면 熱氣와 鬱結되어 痞瘤를 生하니 모양은 麻豆와 같고 甚한 것은 점차 커지고 靨으면 瘡을 이룬다.

< 風瘙癰疹候 (小兒雜病諸候中) >

小兒가 땀을 흘려 옷을 벗으면 風이 腠理에 入하여 血氣와 相搏結聚되므로써 일어나니 서로 이어져서 隱疹을 이룬다. 風氣가 腠理의 浮淺한 곳에 머물러 其勢微하므로 不腫不痛하고 단지 隱疹瘙痒을 이룰 뿐이다.

< 丹軫候 >

丹軫은 肉色不變 又不熱하고 단지 隱軫이 일어나 서로 이어지고 약간 가려운 것으로 丹軫이라 한다.

2. 千金要方¹³⁾

素問에 風邪가 肌中에 客한즉 肌虛하여 眞氣가 發散되고, 또는 寒이 皮膚에 搏하여 腠理를 外發하고 毫毛를 열어 淫氣가 妄行한 즉 癢이 된다고 하였으니, 風疹瘙癢은 모두 이것으로 因한 것이다. 또한 赤疹이라는 것은 모기에 물린 것같이 갑자기 나타나고 煩癢하며 甚한 것은 겹쳐서 융기되고 靨으면 손뎀 곳을 따라 일어난다. 또한 白疹도 이와 같다. 赤疹은 熱時即發하고 冷即止하며, 白疹은 天陰冷即發한다. 白疹은 礬白 끓인 汁을 바르고 혹은 蒴藿를 끓인 것에 술을 조금 넣어 沐浴을 하면 좋다. 혹은 石楠 끓인 汁으로 닦아도 좋다. 나머지는 모두 治丹方法과 같다.

石南湯

青羊脂膏

3. 聖濟總錄¹⁴⁾

< 風瘙痒 >

表虛로 衛氣不足하면 風邪가 乘하여 血脈이 留滯되니 內外가 作變하여 生熱하고 熱則瘙痒한다.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淫邪가 넘치니 급으면 瘡을 이룬다.

藁本散, 威靈仙散, 五白散, 天麻丸, 四生丸, 枳殼散, 荊芥散, 丹參丸, 苦參丸, 枳殼湯, 秦芫丸, 天麻散, 天門冬丸, 八味散, 防風湯, 莽草湯

< 風痞瘤 >

腠理不密로 말미암아 陽氣外泄하면 汗이 나는데, 汗이 멎지 않으면 風邪가 搏하여 風熱이 相併하면 流行치 못하므로 結하여 痞 이 된다. 모양은 麻豆와 같고 甚한 것은 점점 커지고 급으면 瘡을 이룬다.

獨活丸, 蒺藜子丸, 天門冬丸, 金牙酒, 景天花散, 丹參湯, 犀角防風散, 胡麻散, 防風散, 枳殼浸酒, 蒺藜浴湯, 桃人塗方, 野葛膏

< 風瘙癩疹 >

두 종류가 있는데 모두 肌中에 熱이 있기 때문이다. 冷濕之氣가 折之하여 熱結不散한 즉 赤疹을 이루고, 風邪所折로 風熱이 相搏한 즉 白疹을 이룬다. 赤疹은 得熱則劇하고 得冷則減하니 이것은 곧 熱氣가 안에서 鬱結되었기 때문에 惡熱宜冷한 것이고, 白疹은 得陰雨則甚하고 得晴暄則消하니 이것은 곧 熱氣가 밖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惡冷宜熱한 것이다. 冷, 熱로서 證은 비록 다르나 癩疹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대개 身體가 風瘙而痒하여 급으면 隱隱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防風湯, 苦參丸, 烏蛇丸, 秦芫丸, 枳實丸, 雷丸散, 蔓荊實散, 紫威散, 茵陳蒿散, 醉

仙散, 蒺藜子散, 石南酒, 松葉酒, 白蜜酒, 麻黃湯, 蒺藜子湯, 石南湯, 天雄丸, 小朱散, 蒴藶湯, 蒴藶膏, 蛇銜草, 芒消湯, 芎藭粉摩方, 礬石塗方, 景天塗方, 枳實熨方, 升麻膏, 莽草膏, 馬藶浴湯, 白朮浴湯, 鬼箭湯, 烏頭粉

4. 丹溪心法¹⁵⁾

< 斑疹 >

斑은 風熱에 屬하며 痰을 끼고 나타나는 것으로 안으로부터 밖으로 發하는 것이다. 通聖散을 加減하여 微汗散之하되 절대 下之하면 안된다.

內傷斑은 胃氣極虛로 一身火가 外로 遊行한 所致이니 마땅히 補함으로써(火를) 陰으로 내리니 證略例中에서 구하여 쓴다.

發斑은 傷寒으로 痰熱之病이 外에 發한 것이다. 微汗으로 散之하되 下之시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疹은 熱과 痰에 屬하며 肺에 있는 것으로, 清肺火하면서 降痰하고 혹은 解散出汗하며 또는 下之시킨다. 疹이란 즉 瘡疹으로 汗之即愈하니 通聖散을 加減하여 쓴다.

癩疹은 대부분 脾에 屬하며, 皮膚之間에서 隱隱하게 나타나므로 癩疹이라 한다. 發한즉 多痒 或不仁하는 것은 兼風, 兼溫이 다르기 때문이다. 色이 붉은 것은 兼火化한 것으로 黃瓜水에 伏龍肝을 섞어 바르면 紅點斑이 없어진다.

載云: 斑이란 色點은 있으나 頭粒이 없고 隨出即收 收則又出하는 것이다. 斑의 無頭粒者와 다르니 잘 辨別해야 한다.

< 附諸方 >

玄參升麻湯, 陽毒升麻湯, 梔子仁湯, 化癩湯, 黃連橘皮湯, 調中湯, 消毒犀角飲子,

通聖散

5. 醫學入門¹⁶⁾

斑疹은 火에 屬하며 두가지 原因이 있다.

斑은 三焦無根之火에 屬하고, 疹은 心火에 屬하나 肺로 上侵한즉 한가지이다. 外因인 것은 초기에 頭疼, 身大熱, 口知味 하나 大汗下하지 말고 解肌微汗한다. 自吐瀉者는 곧 낫는다. 內因인 것은 頭或微疼, 但手心熱하나 脾胃虛者는 大補하여 其火를 내리고, 身壯者는 淸肺하여 化其痰한다.

斑의 形勢는 錦紋과 같은 것이 掀發하는 것으로 色痕은 있으나 頭粒이 없고 重한 것은 붉은 錦繡와 같고 片을 이루며 胸腹에 多發한다. 傷寒을 誤溫, 誤下하였거나 心火가 所主하였거나 雜病이거나 모두 風熱挾痰한 것으로 手少陽相火이며 治法으로 安裏藥은 多用하되, 發表藥은 少用한다.

外感인 것은 敗毒散加紫草 혹은 升麻葛根湯加玄蔘, 咽痛者玄蔘升麻湯, 狂言 或見血者陽毒升麻湯, 渴者化斑湯, 便閉者 防風通聖散으로 微利之하고 便不甚閉한 것은 去芒硝大黃, 身疼加蒼朮羌活, 痰嗽加半夏하여 쓰고 熱甚者 黑奴丸, 斑爛者 黑膏을 사용한다.

內傷發斑은 가벼워 모기에 물린 자리 같고 發疹은 주로 手足에 나타난다. 초기에 頭疼身熱이 없으니 즉 胃虛로서 火가 밖으로 遊行하는 것이다. 調中益氣湯, 黃芪建中湯을 쓴다.

內傷痰熱이 頭面을 上攻하는 것은 升麻葛根湯加玄蔘貝母黃芩生地麥門冬을 쓴다.

內傷挾外感者는 調中疎邪湯 參蘇飲을 사용한다.

疹은 隱隱하게 皮膚가 가렵고 腫痛은 없는 것이다.

疹에 頭粒이 있어 粟米나 모기 물린 자국과 같이 微紅하면서 隨出隨沒 혹은 沒而又出하며 紅靨이 皮膚表分에서 隱隱히 欲出不出하여 단지 搔痒하고 腫痛이 전혀 없는 것을 癩疹이라고 한다. 봄에 나타나되 傷寒중 가장 危重한 것은 溫毒이다. 升麻葛根湯加牛蒡子荊芥防風 或鼠粘湯을 쓴다.

粟米처럼 나오는 것에는 赤, 白의 구분이 있으니, 赤疹은 天熱燥氣가 乘之한 것이므로 稍冷則消하고(川芎茶調酸 人蔘羌活散 胡麻散, 裏熱者 解毒湯.), 白疹은 天寒冷氣가 折之한 것이므로 稍暖則消한다.(惺惺散, 裏虛者 理中湯.)

似赤似白하고 微黃한 것이 肌肉之間에 숨었다가 四肢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風熱挾濕이며, 주로 沐浴후 風을 感受하거나 汗出로 옷을 벗어서 얻게 된다. 消風散, 寒加官桂, 暑加黃芩柴胡, 濕加蒼朮茯苓, 如肢體不仁者 黃蓮橘皮湯, 遍身疹多痛極者 古苦阜丸, 또한 斑疹竝出者는 風藥을 쓰면 안되는데 痰嗽渴嘔瘡疹으로 變하는 것이 두려워서이다.

얼굴에 紫赤癩疹, 雀子斑, 汗斑은 모두가 類의 완만한 것들이다.

五色疹이 있으니 血毒風火熾한 所致이다. 疹色赤者는 丹疹이라고도 하며, 五色이 두루 있는 것은 血盛으로 熱毒이 命門에 쌓여 있는데 風毒이 相火를 부추킨 즉 全身에 나타나는 것이다. 甚하면 肌爛한다. 寒月에는 升麻葛根湯, 暑月에는 人蔘羌活散, 熱 加黃芩玄蔘, 冷 加黃耆白芷, 外治로는 土朱散, 浮萍湯.

黑色인 것은 入腹하니 가장 사람을 傷하게 한다.

무릇 斑疹이 赤色으로 身煖하면서 胸腹에서 四肢로 번지는 者는 吉하고, 黑色으로 身凉하며 四肢에서 入腹하는 者는 죽는다. 옛날에는 癩疹과 丹疹을 각각 다른 種類로 구분하였으나, 지금은 하나로 보아 原因과 治法이 같다.

6. 景岳全書¹⁷⁾

…… 大人 小兒를 莫論하고 忽然히 斑疹小瘡이 나타나는 것으로 …… 대개 風熱外感에 의한 證이다. 이것의 治法으로는 脈浮而身熱하며 表證이 있는 것은 散風邪를 爲主로 하고, 脈浮而數한 것은 祛風과 清熱을 兼하고, 脈沈滑하면서 表證이 없는 것은 清火를 爲主로 하며, 脈의 浮沈이 모두 滑數하면서 表裏證을 보이는 것은 表裏를 함께 解之한다. 하지만 小兒에게 주로 이 證이 있으므로 그 表裏虛實을 잘 살펴서 治法을 해야 한다. 小兒는 脆弱하므로 安裏하는 藥을 많이 쓰고 攻發하는 藥은 적게 쓰는 것이 마땅하니, 秘則微泄之하고 結則微導之하여 邪氣가 壅滯되지 않고 散之케 되면 쉽게 證이 輕해지고 小兒는 自然히 安정된다. 대개 身溫煖者는 順이고 身凉者는 逆이다.

消風散, 人參敗毒散, 防風通聖散, 荊防敗毒散, 補中益氣湯, 解毒防風湯, 犀角散, 神功托裏散, 大連翹飲, 神功散, 五福化毒丹

7. 外科準繩¹⁸⁾

…… 熱이 血分에 搏하여 그 邪가 表에 并發하기 때문에 赤이고, 만약 風濕이 氣分을 搏하면 氣液不行하여 邪가 表에 并發한즉 白이다.

石南湯, 加味羌活飲, 羚羊角散, 樺皮散, 犀角散, 鬼箭羽散, 漏蘆丸, 楓香丸, 加味

烏荊丸, 烏蛇膏, 蒴藿膏, 莽草膏, 青羊脂膏, 蒴藿煎, 楓香湯, 蒴藿根湯, 地骨皮湯, 卷柏散, 丹參散, 升麻膏

8. 醫學正傳¹⁹⁾

內經에서 “少陰所至爲癩疹.”이라 하였으니, 少陰所至者란 君火有餘를 말하는 것으로 熱毒이 大行하는 戊子戊午年을 말한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心이 主하는 心火가 太過한 즉 자기가 勝하는 곳을 制하니 肺金을 燒燻시키는 것이다. 대개 肺는 皮毛를 主하므로 皮膚之間에 손톱모양의 紅點이 나타나는 것은 心火가 업신여겨 乘之한 色으로서 癩疹이라 한다.

또한 傷寒溫熱病으로 錦紋과 같은 斑點이 나타나는 것을 發斑이라 하는데 모두 熱毒의 所致이다. 그 證에는 陽毒, 陰毒이 있다. 이것은 모두 겨울이 추어야 하는데 도리어 따뜻하여 사람이 不正之氣를 받으므로써 春夏에 이르러 나타나면 斑爛이 된다. 무릇 陽脈浮數하고 陰脈實大한 것은 溫毒이라 하고, 或 內外에 熱結이 극심하여 舌卷焦黑, 鼻若煙煤, 狂言見鬼, 面赤하면서 斑爛하는 것은 陽毒이라 한다. 溫病에 너무 빨리 下之하여 熱氣가 乘虛入胃하였거나, 너무 늦게 下之하여 熱病이 胃中에 鬱積하였거나, 醫者가 熱藥을 過多 誤用하여 胃氣熱甚해서 內傷熱病에 이르면 虛火가 肺之間에 燔灼하니 모두 發斑을 이룬다. 이렇게 해서 赤斑이 나타나면 半生半死하고, 黑斑이 나타나면 九死一生한다. 治法으로는 化斑湯(즉 人蔘白虎湯), 升麻葛根湯, 玄蔘升麻湯, 黑膏, 黑奴丸 등을 쓰니 이것은 모두 正治法이다.

消風散, 葛根橘皮湯, 陽毒升麻湯, 玄蔘升麻湯, 陽毒梔子湯, 犀角消毒飲, 解毒防風

湯, 升麻葛根湯, 陰毒升麻鱉甲湯, 加味羌活湯, 調中湯, 化斑湯, 黑膏, 大青四物湯, 加味敗毒散

9. 醫宗金鑑 外科心法要訣 白話解²⁰⁾

痞癩汗出中邪風 狀類豆瓣扁癩形 日痒秦芫湯宜服 夜重當歸飲服寧

[譯注] 本症은 俗稱 鬼飯疙痞이다. 肌表 虛弱으로 땀이 난 후 腠理疏開하였거나 露睡乘冷한데 風邪가 感한 것이다. 初起에 皮膚가 가렵고 연이어 疙痞가 發生하여 누에콩과 같이 평평한 모양이 되고 여러개가 모여서 片을 이룬다.

治法 : 日間に 癢痒이 甚한 것은 風重에 屬하므로 秦芫牛蒡湯을 服用하고 ; 夜間에 癢痒이 甚한 것은 血虛에 屬하므로 當歸飲子을 服用한다. ; 外用으로는 百部을 燒酒에 담근 술을 帛에 묻혀 患處에 바른다. 風冷을 避하면 效果를 볼 수 있다.

秦芫牛蒡湯

10. 醫林撮要⁵⁾

冷丹은 血風血熱에 屬하며 通聖散을 쓰고, 痰血이 相搏하는 것은 蟬退 殭蠶 荊芥 南星을 加한다.

疹이 四肢에서 腹部로 생기는 者는 죽는다. 顆粒이 있고 隨出即沒而又出者는 解散을 주로 한다.

甚한 것은 升麻 黃芩 大黃 各 一兩, 藍葉 玄蔘을 各 二兩 捰여 먹는다.

11. 證治彙補²²⁾

<外候>

針頭稠密한 것은 凶하고 喘促自汗이 있는 者는 죽는다. 氣實足媛者는 易治이고

氣怯足冷者는 難治이다. 胸腹으로부터 四肢로 퍼지는 것은 可治이고 四肢로부터 入腹하는 것은 不治이다. 먼저 吐瀉가 있고 發斑하는 것은 吉한 것이고 發斑後에 久瀉不止인 것은 凶하다.(彙補)

<發疹外候>

疹은 豆粒이 있는 것이다. 혹 粟粒이나 蚊迹과 같고, 隨出隨沒 沒而又出하며 紅靨이 皮膚에 隱密하게 나타나나 透出하지 않는 것은 癩疹이다. 顆粒이 皮膚에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痧疹이다. 초기에는 반드시 鼻塞流涕, 聲重咳嗽, 頭疼胸悶, 發熱自汗을 兼한다. 또 風邪가 擁肺한 것이 있는데 氣急鼻煽, 咳不能臥하니 潤肺利邪하는 藥을 先用한다. 나중에 潮熱로 변하고 頭不疼, 胸已快하나 오직 咳嗽氣急하는 것은 本氣素虛하기 때문에 비록 肺邪는 풀어졌지만 陰火가 乘旺한 것이다. 脈大者는 滋陰清肺하되 參, 耆, 酸斂 등으로는 구하지 못하니 誤投하지 말아야 한다.

<脈法>

斑疹鬱熱인 것은 或伏, 或絶, 或細, 或散하고 斑疹熱盛인 것은 陽浮而數하고 陰實而大하다. 大개 洪數有力者는 生하고, 沈小無力者는 死한다.

<治法>

斑疹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風藥을 純用할 수 없으니 痰嗽渴嘔瘡瘍으로 變하기 때문이다.

<用藥>

外感斑勢未透인 것은 升麻玄蔘湯을 發之하고, 已透한 것은 人蔘化斑湯으로 清之한다. 內傷發斑은 調中益氣湯으로 斂之하고, 風熱發疹은 消風百解散으로 散之하고, 疹毒未解인 것은 鼠粘子湯으로 清之한다. 脾家風濕發疹인 것은 伏龍肝散을

黃瓜와 水調하여 服用한다.

人蔘化斑湯, 升麻玄蔘湯, 調中益氣湯, 調中湯, 大建中湯, 消風百解散, 鼠粘子湯, 防風通聖散

12. 丁茶山小兒科秘方⁴⁾

① 皮는 肺에 屬한 것인데 모든 痒症은 血虛不榮肌의 所致니 左記方藥을 用할지니라

加味四物湯

② 癩疹이란 것은 色點만 있고 顆粒이 없는 것을 癩이라 하고 浮小하고 顆粒이 있는 것을 疹이라 하니 隨出隨沒(나왔다 곧 사라지는 것)하며 色赤·身煖하고 胸腹으로부터 四肢에 散하는 것은 吉하나 色黑·身凉하며 四肢로부터 腹部에 入하는 것은 凶하다. 대개 風寒에 傷하여 發癩되는 것을 陽毒이라 하는데 紅潤稀少한 것은 起發한지 五六日만이면 저절로 나오며 春溫할 적에 發癩하는 것을 溫毒, 夏熱할 적에 發癩하는 것을 熱毒, 時行發癩을 時毒이라 하니 모두 火乘肺의 所致이다. 그런데 紅點이 輕한 것은 疹子和 蚊迹(모기 물은 자욱)과 같으며 手足에 發하는 것은 先紅後黃하고 重한 것은 錦紋과 같으며 胸腹에 發하는 것은 先紅後赤한 것이 그의 특징으로서 모두 發汗함을 切忌하고 날라말라할제 먼저 其毒을 쳐야 하나니 左記方藥을 用할지니라.

加味升葛湯

③ 陰症發癩은 胸腹과 手足部에 나와서 稀少微紅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無根의 虛火라 左記方藥을 用할지니라.

玄蔘四物湯

④ 內傷發癩은 初起時에 頭痛과 身熱이 없고 其形이 蚊·蚤의 咬狀과 같은 것이니 이것은 胃가 虛하여 一身의 火가 外

에 遊行함으로써이라 다만 左記方藥을 用할지니라.

⑤ 癩疹은 脾에 屬한 것으로 皮膚面에 隱隱然으로 나타나 多痒 혹은 不仁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風·熱·濕의 所感을 兼한 것이 있으며 또한 赤·白의 두 종류가 있어서 붉은 것은 天氣燥熱의 所乘으로서 稍涼하면 消散되고 흰 것은 天氣寒冷의 所折로서 稍煖하면 消散된다.

加味清肌散

13. 幼幼集成²¹⁾

小兒의 癩과 疹은 마땅히 證候와 陰陽을 나누어야 한다. 겉으로 掀腫한 것은 少陽相火에 屬하며 癩이라 하고 그 증상이 주로 面部나 背部, 四肢에 나타나며 稠密하게 많이 나고 色은 비단무늬와 같으니 紅赤色은 胃熱이고 紫黑色은 胃爛이다. 消癩青黛飲이 마땅하다.

皮膚之內에서 紅點이 나타나는 것은 少陰君火에 屬하며 疹이라 하고 그 증상은 胸腹, 手足에 나타나며 드문드문 적게 난다. 이것은 無根失守之火가 胸中에 모여 肺로 上蒸하는 것으로 皮膚에 숨어서 小疹을 이룬 것으로 그 모양은 모기나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으나 비단무늬는 아니다. 理中湯을 쓴다.

斑疹이 吐瀉로부터 나타난 것은 함부로 몇게 하지 말아야 하니 그 毒氣가 上下를 따라 나가기 때문이니 中氣를 調節함이 마땅하다. 만일 吐瀉後 遍身에 發熱하고 斑이 錦紋과 같은 것은 熱氣가 虛를 따라 胃로 入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특히 여름에 이와 같은 證이 많다. 化斑湯을 쓴다.

癩疹은 대부분 脾에 속하며 皮膚之間에서 隱隱하게 나타나 많이 가렵고 혹 붉

지 않은 것을 俗人은 風丹이라고 한다. 加味羌活散을 쓴다.

消癩青黛飲, 化斑湯, 加味羌活散

14. 診療要鑑³⁾

病因 : 癩疹의 발생은 대개 脾에서 起因되며, 隱隱하게 皮膚에 發하므로 癩疹이라 하는바. 發하면 搔痒이 甚하고, 或은 不仁證이 되기도 하나, 腫痛은 없는 것이다. 癩疹은 거의 風濕熱의 兼作으로 되는 것인데, 紅色은 火化를 兼한 所致이다.

證治 : 癩疹은 春季에 發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溫毒으로 因한 것이니 升麻葛根湯에 牛蒡子 荊芥 防風을 加해 쓸 것이다. 疹에는 赤白色의 區別이 있는데, 赤疹은 陽證에 屬하며 清涼을 만나면 消滅되고, 白疹은 陰證에 屬하여 溫煖을 만나면 消滅되는 것이다. 赤疹에는 胡麻散을 쓰고, 白疹에는 消風散을 쓰는 것이 通治法이다.

癩疹이 或白 或赤한 데는 防風通聖散에서 芒硝을 빼고, 豆豉 葱白을 加하며, 麻黃을 倍加하여 煎服하고, 或 口燥 便秘가 있을 때는 防風通聖散을 本方대로 쓰고, 惡風 惡寒이 있으면 清肌散을 쓰고, 或은 眼目이 昏暗한 境遇가 있는데 此亦 風의 所致이니 除風하면 昏暗은 自癒한다. (入門)

癩疹에 醋를 마시면 風疹이 되어 危證을 招來한게 된다.

15. 漢方外科²⁾

< 原因 >

① 內因性인 것 : 消化器障礙, 飲食物中毒, 寄生蟲, 婦人生殖器障礙, 神經衰弱, 內分泌 홀몬의 障礙 등에서 起因된다.

② 外因性인 것 : 모든 昆蟲類에 물렸을 때, 藥劑, 꽃가루, 먼지, 惡臭 등에서 起因된다.

③ 原因을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다.

< 證狀 >

① 急性蕁麻疹 : 腐敗된 飲食物, 變質된 藥劑, 毒物 등이 體內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皮膚가 가렵고 發赤되어 皮膚表面으로 두드러져 있고, 境界가 뚜렷하여 손톱크기 或은 손바닥 크기 이상으로 전신에 번져진다.

② 慢性蕁麻疹 : 이것은 寒冷蕁麻疹으로서 冷水 冷風에 依하여 發生되며, 白色으로 나타나고 大端히 緩慢하게 作用한다. 或은 溫煖에 依하여 發生하는 것도 있다.

③ 固定蕁麻疹 : 모기, 이, 벼룩 或은 毒蟲 등에 물리고 찢려서 되기도 한다. 兩側下腿部에 散在하여 있거나 때로는 前膊 等に 大豆大의 완고한 丘疹이 나타나고 角質을 增殖하고 우상을 나타내며, 極甚한 搔痒이 있다.

④ 色素性蕁麻疹 : 先天的 或은 後天的인 것이 있다. 先天的인 것은 黃褐色의 蠶豆大의 色素斑이 있으면서 結節이 多數 發生한다. 搔破하면 蕁麻疹樣과 같이 腫脹한다. 이 證은 數年이 지나면 自然히 治癒된다. 後天的인 것은 色素가 沈着되고 境界가 뚜렷하다.

以上の 四種類 外에 그 形狀에 따라 地圖狀蕁麻疹, 蛇行性蕁麻疹, 水疱性蕁麻疹, 花環狀蕁麻疹 등이 있다. 또한 皮膚에 蕁麻疹 發生과 함께 喘息비슷하게 發作하는 것은 氣管支粘膜이 부어있기 때문이다.

蕁麻疹이 脾에 關係하고 있으며, 發疹하면 搔痒이 甚하고 或은 鈍麻(不仁)되기도 하며, 或은 붉게 或은 희게도 나타난다.

赤色은 陽에 屬하며 風熱로 形成된 것이고, 白色은 陰에 屬하며 寒冷, 風濕으로 形成된 것이다. 蕁麻疹이 봄에 發生하는 것은 溫毒으로 形成된 것이니, 가장 重證이다. 또한 發斑의 狀態도 수분에서 몇시간만에 사라지는 것도 있고, 몇개월이나 發作性으로 반복하여 發疹을 되풀이 하는 것도 있고, 몇년에 걸쳐서 發疹이 멈추지 않는 것도 있다. 或은 蕁麻疹이 있을 때 醋를 服用하여 風疹을 形成하여 眼昏이 되는 수도 있다.

< 預後 >

預後가 대개 良好하다. 그러나 慢性的으로 數個月, 數年동안 계속되어 預後가 좋지 못한 것도 있다.

< 療法 >

食餌療法 및 生活樣式 : 海腥魚類, 鷄, 鵝, 羊肉, 술, 刺戟性, 脂肪性飲食物, 콩치, 아지, 고등어, 멸치, 계란 등을 忌하고 바람을 피하고 寒冷과 暖溫의 갑작스러운 變化를 삼가고 手抓를 可及的 避하여야 한다.

< 藥物療法 >

- ① 봄에 發生하는 것 : 升麻葛根湯에 牛蒡子, 玄蔘, 荊芥, 防風을 加하여 使用한다.
- ② 赤疹 : 胡麻散, 清肌散 등을 投與하고 白疹 : 消風散을 投與한다.
- ③ 赤白疹 : 防風通聖散에 芒硝를 除去하고 豆豉 蔥白을 加하여 使用하거나 加味羌活湯을 投與한다.
- ④ 荊防敗毒散, 回春涼膈散, 藿香正氣散에 樺皮 18.75g을 加하거나 四物湯에 黃芩 浮萍을 加하여 使用하기도 하고, 犀角消毒散, 樺皮散 등을 選用하기도 한다.
- ◎ 灸法 : 曲池血을 數十壯 灸하면 著效가 있다.

16. 東醫小兒科學¹⁾

구진성 홍반성 불규칙한 구반으로 나타나며 가려움증을 동반한다. 원인은 규명하기 힘들으나, 약물, 감염증, 기생충 감염, 흡입성 알레르겐, 寒熱의 물리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소가 원인이 될 수 있다. 모양이나 부위가 자주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며 수시간에서 수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 治療 >

原因이 되는 物質을 除去하고 그 외 對證療法으로 항히스타민제를 쓰기도 하며 鎮靜劑도 쓴다.

[東醫治療]

< 病因病理 >

주로 脾에 관계하며 內因성과 外因성으로 구별한다.

< 症狀 >

- 陽症 : 赤色으로 發疹 搔痒한다.
- 陰症 : 白色으로 緩慢하게 作用하며 주로 寒冷 風濕으로 형성된다.

< 治方 >

- 赤色 : 胡麻散 清肌散
- 白色 : 消風散

17. 小兒百病效驗方²³⁾

< 概說 >

皮膚에 紅色 혹은 白色의 風團疹塊가 出現하는 것으로 갑자기 發病하고 迅速하게 소실되며 또한 때없이 사라졌다 나타나고 搔痒이 甚하고 消退後에는 痕迹이 남지 않는 것을 特徵으로 하는 疾患이다. 蕁麻疹, 癩疹, 痞瘤, 風疹塊, 風矢 등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一種의 過敏性 疾病이다. 어느 年齡, 어느 部位라도 발생할 수 있다. 계절성은

뚜렷하지 않다.

本病을 일으키는 原因은 비교적 複雜하며, 發病與否는 先天稟賦와 個人的 體質의 차이와 밀접한 關係가 있으며 外因과 內因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內因은 주로 稟賦不足, 氣血虛弱, 正氣失固이고, 外因으로는 虛邪賊風의 침범, 혹은 飮食不節과 生선, 새우, 매운 음식, 膏粱厚味 등의 섭취로 인한 것 혹은 蟲積, 異味, 粉塵의 接觸 등에 의하여 營衛不和하여 腠理不固한데다 風邪를 感受하면 肌膚에 搏하여 일어난다.

治療는 祛風散邪, 除濕止痒, 養血和營이고, 이외에 적극적으로 過敏原(항원)을 찾아 病因을 제거하는 것이 根本治療의 關鍵이다.

이외에도 丘疹性蕁麻疹이 있는데 이것은 통상 蕁麻疹의 한 類型으로 認識되고 있으며, 小兒의 皮膚病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여름이나 春末秋初에 好發하며, 주로 丘疹樣의 손상이다. 軀幹(胸背), 四肢에 好發하며 下半身に 제일 많이 나타나고 黃豆모양의 크고 작은 紅色丘疹으로 중심에 針頭크기의 水疱가 있으며 丘疹은 수개에서 수십개까지 있을 수 있고 散在되어 분포한다. 매우 가렵고, 긁으면 滲出血水하여 마른후 痂皮가 形成 脫落하면 色素沈着이 되어 남는다. 일반적으로 病程은 10日前後이다. 일부 患兒는 反復發作하나 治療후에는 完全 治癒될 수 있다. 본병의 病因病理는 蕁麻疹과 類似하며 특히 昆蟲이나 飮食物에 過敏하거나 消化不良, 腸道寄生蟲感染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치료 대법은 蕁麻疹과 같다.

枳朮赤豆飲, 過敏煎, 扶正祛濕湯, 蟬蛻黃酒煎, 解毒滲濕湯, 加減驅蛔湯, 金苓小豆

湯

18. 兒科證治²⁴⁾

瘡癩瘡은 “風疹塊”, “隱疹”이라고도 부르며, 俗名은 “風尸”이다. 이것은 皮膚에 紅色疹塊가 발생하여 搔痒이 極烈하고 時隱時現하는 것이 反復되며 根治가 쉽지 않은 疾病이다.

[病因病機]

小兒가 본래 虛弱하여 腠理不固하므로 汗出後 當風하여 風寒之邪가 皮膚에 結하여 發生한다. 혹은 風濕之邪가 入裏하여 營分에 蘊伏하였다가 皮膚로 發한所致이다. 즉 外因과 內因이 있어 이들이 相互作用함으로써 本病의 發生을 構成한다. 이외에도 本病을 誘發하는 기타 原因이 많고 個人差가 있기 때문에 臨床症狀도 一致하지 않는다.

[辨症施治]

(1) 風寒型

主症 : 疹塊, 顏色이 淡紅色이고 皮膚가 가렵고 혹 惡寒發熱, 頭痛을 수반하고 寒冷한 氣候를 만나면 搔痒이 더욱 甚해진다. 舌苔薄白, 脈浮緊하고 指紋이 淡紅色이다.

治則 : 疏風, 解表, 止痒.

選方 : 荊防敗毒散加減

(2) 風熱型

主症 : 疹塊, 顏色이 鮮紅色이며 皮膚가 가렵고 惡熱, 口脣乾燥하며 혹은 咳嗽, 煩躁을 수반한다. 熱을 만난즉 疹痒이 비교적 심해진다. 舌苔薄白 或 薄黃하고 脈浮數하며 指紋이 紅紫色이다.

治則 : 疏風, 清熱, 止痒.

選方 : 消風散

19. 中醫兒科臨證備要²⁵⁾

蕁麻疹은 一種의 過敏性 疾病으로 突然 發作하였다가 迅速하게 消退하는 瘙痒性 風團이다. 急性 蕁麻疹은 1~2週內에 治癒되고, 慢性으로 反復發作하는 것은 痞瘤라 한다.

(1) 急性 蕁麻疹은 疏散表邪한다.

小兒은 皮膚가 薄嫩하고 血氣微弱하여 腠理不固하므로 衣服에 주의하지 않거나 더운날 땀을 흘린 후에 風邪가 들어와 搏于血氣하고 皮膚之間에 藏하여 消散되지 못하므로써 風疾癩疹이 된다. 治療는 表에 있는 邪를 疏散시킨다. 麻黃, 桂枝, 防風, 白蒺藜, 蟬蛻, 僵蠶, 地膚子, 苦參, 生의 苡仁 等藥을 水煎服한다.

(2) 慢性 蕁麻疹은 養血祛風한다.

“諸痒爲虛”, 血虛하면 肌腠를 滋養하지 못하여 가렵다. 治療는 養血祛風한다. 四物湯加黃耆, 何首烏, 地膚子, 蛇床子, 白蘚皮를 水煎服한다.

4. 辨症施治

(1) 風熱型 (急性 蕁麻疹)

① 症狀 : 皮疹色紅, 灼熱奇痒, 遇熱加劇, 舌紅, 苔黃, 脈滑數.

② 治法 : 疏風清熱.

③ 方藥 : 消風散, 消風養血湯加減

(2) 風寒型

① 症狀 : 皮疹日大, 反復發作, 疹塊色淡, 遇冷即發, 得熱則輕, 舌苔薄白, 脈浮緊.

② 治法 : 疏風散寒, 調和營衛.

③ 方藥 : 桂枝湯加減, 敗毒散.

20. 中醫兒科學 (中醫精華叢書)²⁶⁾

風疹疙瘩은 皮膚發疹으로 皮膚가 高出되고 扁平하여 모양이 누에콩과 같고 紅色으로 가려운 것이 隨出隨沒하는 흔한

皮膚病이다. 風瘙疙瘩은 風瘙隱疹, 風丹이라고도 하며, 西洋醫學에서는 蕁麻疹, 風疹塊라 한다. 안으로 血熱이 있고 밖으로 風邪를 感受한 所致이다. 이것의 發生은 性別, 年齡의 區分이 없고, 季節, 發生部位에도 區別이 明確하지 않다. 以前의 學者들이 認識했던 痞瘤은 風疹塊로서 實際 臨床에 根據하여 發病原因과 治療上에 差異가 있다.

<病因病理>

血熱內蘊한데 風邪를 外受하여 風과 血이 相搏하므로써 腠理에 鬱하고 皮膚에 發하여 일어난다. 風은 氣를 따라 달리고, 氣는 血을 따라 行하므로 隨起隨沒하는 特徵的인 症狀이 있다. 또한 腸寄生蟲(蛔蟲, 鉤蟲) 혹은 素體稟賦와 關係가 있으며, 게 새우 생선 등 비린 飲食物을 攝取하거나 便秘가 있어도 이 病을 誘發한다.

<辨症施治>

發病이 突然하고 局所的 혹 全身的으로 크기와 形態가 각각 다른 疹塊疙瘩가 나타나며 작은 것은 누에콩만 하고 큰 것은 호두만하며 甚한 것은 더 큰 것도 있다. 邊緣이 不規則하고 顏色은 붉거나 淡紅色이고 隨出隨沒, 此起彼伏하는 것이 反復發作되며, 瘙痒이 甚하고 나온 後에는 痕迹이 남지 않는다. 全身症狀으로는 瘙痒感으로 夜臥不安하고 주로 腹痛 혹은 大便秘結을 隨伴하고 간혹 發熱하는 경우도 있다. 一部 患兒는 反復發作하고 藥物에도 反應하지 않아 오래도록 낫지 않는 것이 數個月에서 數年에 이르기기도 한다.

[治法] 祛風散邪, 清熱涼血.

[方藥] 涼血祛風散 : 生地黃, 赤芍藥, 牡丹皮, 黃芩, 牛蒡子, 蟬蛻, 荊芥, 防風, 薄

荷, 炮山甲, 代赭石.

大便秘結者, 加大黃·玄明粉; 腹痛有蟲積者, 佐以殺蟲藥物, 如川棟皮·檳榔·使君肉等.

21. 中國醫學百科全書²⁷⁾

隱疹은 隱疹, 癩疹이라고도 한다. 그疹塊가 時隱時現하기 때문이다. 또한 皮膚에 조각을 이루어 瘙痒하며 風을 만난 즉 易發하므로 風斑, 風瘙隱疹, 風痞라고도 부른다. 즉 蕁麻疹이다. 癩疹의 發生은 肌膚虛하여 濕熱이 內蘊한데다 다시 風寒을 感受하여 膚膜에 鬱한 것이다. 혹은 胃腸實熱한데 風邪가 침범하여 안으로도 疏泄치 못하고 밖으로도 透達치 못하므로써 肌膚腠理에 鬱하여 생긴다.

隱疹은 또한 體質과 有關하여 生선, 疥, 새우 등 過敏 飲食物을 먹으면 誘發된다. 腸道에 寄生蟲이 있어도 發病을 일으킨다. 隱疹은 突然發生하고 消退도 아주 빠르며 1日內에 여러번 反復될 수 있고 痕迹을 남기지 않는다. 隱疹發生時 극렬한 瘙痒感이 있고 일부 患兒는 發熱, 惡寒을 隋伴한다. 胃腸에 發生하면 惡心, 嘔吐, 腹痛, 便秘 혹은 泄瀉가 있을 수 있고, 咽喉에 發生하면 呼吸困難이 있을 수 있다.

隱疹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鮮紅色이나 瓷白色이 있는데 臨床에서 赤疹과 白疹으로 분류한다.

赤疹: 즉 風熱隱疹으로 風邪와 蘊熱이 相搏한 것. 그 症狀은 隱疹이 鮮紅色이고 灼熱瘙痒, 舌質深紅, 指紋色紫, 脈浮數하다. 治療는 마땅히 散風清熱하니 銀翹散 加 蟬蛻, 生地黃, 赤芍藥, 혹은 消風散 加 銀花, 菊花하여 쓴다. 만일 風熱之邪가

안으로 胃腸에 搏하고 밖으로 肌膚에 結하면 發熱, 痒甚, 腹痛便秘, 小便赤澀, 口渴舌乾, 苔黃厚, 脈實하므로 祛風解表, 通腑瀉熱한다. 防風通聖散 혹은 涼膈散 加 蟬蛻, 僵蠶을 쓴다.

白疹: 즉 風寒隱疹으로 風邪와 寒濕이 肌膚에 搏結한 것. 隱疹色白, 極痒하고 雨冷을 만나면 甚해지고 風中에서도 심해지며, 晴暖한 날에는 緩解되며 衣服을 따듯하게 해도 나아진다. 舌苔白薄, 指紋淡紅, 脈浮緊하다. 祛風散寒하니 麻黃湯 合 桂枝湯 加 川芎, 當歸, 荊芥을 쓴다.

만일 隱疹이 反復發作하고 오래 持續되며 神疲身弱, 舌淡, 脈弱한 것은 대부분 氣血兩虛에 屬하므로 養血祛風, 益氣固表한다. 異功散 合 當歸補血湯 加 荊芥, 防風, 川芎, 全蝎을 쓴다.

便秘가 있으면 小胡麻, 何首烏, 威靈仙, 石菖蒲, 苦參, 甘草 등을 煎服한다.

腸道에 寄生蟲이 있는 것은 앞에 記述한 證治에 根據하여 使君子, 雷丸, 檳榔, 苦棟根皮 등 驅蟲藥을 參酌하여 쓴다.

隱疹의 外治로는 苦參, 黃柏, 大楓子, 蛇蛻, 蛇床子, 白芷, 蒼耳子, 花椒 등을 끓인 물로 熏洗한다.

또한 合谷, 曲池, 足三里, 血海, 三陰交, 內庭에 刺針한다.

22. 中醫外科學²⁸⁾

本病은 中醫에서 “風痞瘤”, “癩疹”이라 하며, 俗稱 “風疹塊”이고, 瘙痒性 風團이 突然發生하고 迅速消退하며 消退後 痕迹이 남지 않는 것이 特徵이다. 眼瞼, 口脣 등 성긴 組織 部位에 發生하는 것은 水腫이 뚜렷한즉 “游風”(血管神經性 水腫)이라 부르는데 同一한 疾病이다.

[病因病理]

1. 肌膚에 濕이 있는데에 風熱 혹은 風寒의 邪를 感受하여 營衛가 不和해져서 일어난다.

2. 腸胃濕熱한데 風邪를 感하여 안으로 疏泄치 못하고 밖으로 透達하지 못하여 皮毛, 腠理之間에 鬱하여 發生한다.

3. 過敏所致로 腸內에 寄生蟲(蛔蟲, 鉤蟲, 姜片蟲 등)이 있거나 생선 계 새우 약물 등의 섭취로 濕熱이 内生하여 肌膚에 머물러도 本病을 일으킨다.

4. 衝任不調로 營血不足하여 膚失所養한 것이다. 衝任脈은 肝腎에 系하니 營血이 不足하면 肝腎을 濡養하지 못하여 生風生燥하므로써 風燥가 肌膚을 막아 肌膚의 所養이 失調되면 本病을 일으킨다.

5. 冷, 熱, 風 등의 刺戟, 혹은 魚鮮蝦蟹의 섭취, 某種藥物의 사용, 腸寄生蟲, 消化器의 機能障碍 등에 의한 過敏反應으로 皮膚組織細胞에서 histamine이 분비되어 小血管이 擴張되고 血管壁의 滲透性이 增加되므로써 局限性 水腫이 形成되어 風團樣 損傷이 나타난다.

[臨床表現]

發病이 갑작스럽고 身體의 어느 부위에 서든 局限性的 風團이 발생하는데 작은 것은 참깨만하고 큰 것은 누에콩만하고, 鮮紅色 혹은 淡黃白色으로 곱을수록 커지고 많아지며 融合되어 環狀, 地圖狀 등 各種 形狀을 이룬다. 眼瞼, 口脣 등 組織이 성긴 곳에 나타나는 것은 浮腫이 아주 뚜렷하며 血管神經性 水腫이라고 한다. 두드러기는 몇 시간후 迅速하게 消退되며 痕跡은 남지 않고 後에 또다시 나타나는 것을 反復하다가 一歲前後에 消失된다. 다만 일부는 慢性的으로 反復發作하여 數個月에서 數年에 걸쳐 나타난다. 極甚한 瘙痒이나 灼熱感을 自覺한다.

(1) 風熱型 : 皮疹色赤, 遇熱則加劇, 得冷則減輕, 夏重冬輕, 脈浮數 苔薄黃.

(2) 風寒型 : 皮疹色白, 遇冷或風吹則加劇, 得熱則減輕, 冬重夏輕, 脈遲或濡緩 苔薄白或薄白而膩.

(3) 腸胃濕熱型 : 大便秘結或泄瀉, 精神疲乏, 胃納不佳, 發疹時伴有腕腹疼痛, 苔黃膩, 脈滑數, 或大便檢査有寄生蟲卵.

(4) 衝任不調型 : 常在月經前 2~3일 發疹, 往往隨着月經的結束而消失, 但在下次月經來潮時, 又復發作.

(5) 氣血兩虛型 : 疹塊反復發作, 延續數月或數年, 由于瘙痒의 寢食不安, 耗傷氣血, 故在勞累後重虛其氣血而發作加劇, 伴神疲乏力, 脈濡細, 苔薄, 舌質淡等全身症狀.

[豫防]

1. 먼저 過敏 反應을 일으키는 藥品, 飲食物, 기타 因子 등을 찾아내어 除去한다.

2. 寄生蟲이 있을 경우 우선 驅蟲治療를 하고, 刺戟性 飲食物을 섭취하지 않는다.

[治療]

1. 祛風清熱利濕, 活用于風熱型 : 消風散

2. 祛風散寒, 調和營衛, 活用于風寒型 : 桂枝湯加味

3. 祛風解表通腑泄熱, 活用于腸胃濕熱型 : 防風通聖散合茵陳蒿湯加減

4. 調攝衝任, 活應于衝任不調型 : 四物湯合二仙湯加減

5. 調補氣血, 活用于氣血兩虛型 : 八珍湯

23. 中醫外科學²⁹⁾

[概述]

皮膚에 鮮紅色이나 蒼白色의 風團이 나타나 時隱時現하므로 癩疹이라 한다.

癩疹의 특징 : 瘙痒性 風團, 突然發生, 迅速消退, 不留任何痕跡. 本病은 어느 年

齡이라도 發生하므로 男女老少 모두 나 타날 수 있다.

[病因病理]

이 病은 稟賦不耐로 人體가 刺戟因子(寒冷, 飮食物, 體虛受邪, 情志內傷 등)를 견디지 못하고 營衛失和, 氣血凝滯하여 생긴다. 寒冷이 肌表를 침범하여 氣血이 失調되어 肌表에 凝滯하므로써 發生하는 것이 있고, 腸胃에 濕熱內生한데 風을 感受하거나 생선, 새우, 비린내나는 음식을 먹거나 혹은 腸寄生蟲이 있어 兩邪相合하므로 濕熱之邪가 밖으로는 透達치 못하고 肌腠에鬱하고 안으로는 疏泄外出치 못하여 肌膚에 머물러서 발생하기도 한다. 또 體虛로 衛氣不固한데 風邪를 感受하거나 氣血兩虛로 血虛生風하여 風邪가 肌表에鬱하여 發生한다. 情志內傷 혹은 衝任失調로 肝腎不足하면 肌膚가 失養하고 오래된즉 血燥生風하여 肌膚을 막음으로써 發生한다.

[辨證]

갑자기 發生하는 局限性 風團으로 色紅或淡하고 가렵다. 긁으면 더욱 많아져 融合되면서 여러가지 모양을 이루며, 빠르게 消退하고 痕迹은 남지 않으나 時隱時現한다. 灼熱感과 極甚한 가려움, 發熱 등을 느끼며, 甚하면 惡心, 嘔吐를 수반한다. 臨床的으로 辨證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1. 風寒證 : 白色風團塊, 遇冷加重, 得熱減輕, 冬季多發.
2. 風熱證 : 皮疹色紅, 遇熱加重, 得冷減輕, 多發于夏季, 苔薄黃, 脈浮數.
3. 腸胃濕熱證 : 發疹時伴腹痛, 納呆, 便秘或泄瀉, 甚者惡心嘔吐, 苔黃膩, 脈滑數, 部分病人有腸道寄生蟲.
4. 氣血兩虛證 : 風疹反復發作, 延續數月

或數年, 勞累後發作加劇, 疲乏, 苔薄質淡, 脈濡細.

5. 衝任不調證 : 經前數天開始出現風團, 隨月經乾淨而消失, 下次來潮再發.

[治療]

- (1) 風寒證 : 疏風散寒, 調和營衛, 桂枝湯或 麻桂各半湯加減.
- (2) 風熱證 : 疏風清熱爲主, 消風散加減.
- (3) 腸胃濕熱證 : 疏風解表, 通腑泄熱爲主, 防風通聖散 合 茵陳蒿湯加減.
- (4) 氣血兩虛證 : 調補氣血, 八珍湯加減.
- (5) 衝任不調證 : 調攝衝任, 四物湯 合 二仙湯加減.

24. 中醫兒科學³⁰⁾

[概述]

癩疹은 “稟賦不耐”로 因해 發生하는 皮膚病으로 現代醫學에서는 蕁麻疹이라 하고 俗稱 風疹塊이며 臨床上 흔히 볼 수 있는 過敏性 疾病이다. 臨床特徵으로는 隆起性 風團塊, 發病驟然, 消退迅速, 退後不留痕迹 등이다. 疹塊가 時隱時現하므로 癩疹이라 부른다.

[病因病理]

“稟賦不耐”가 本病 發生의 基本原因이고 臨床上 某種의 物質에 대한 過敏은 往往 長期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 “稟賦不耐”와 人體의 臟腑氣血調節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臟腑氣血功能이 失調되는 原因은 飮食不節 생선, 계, 새우, 蛋白質, 乳製品 등을 먹거나 某種의 藥物服用, 腸寄生蟲의 感染 등으로 인하여 脾胃之氣가 通達宣行치 못하여 營衛가 失和된 경우, 生物藥品の 注射, 動物의 皮毛에 接觸 등의 外部刺戟으로도 營衛가 失和된다. 人體는 여러 종류의 因子에 의해 營衛失和되어

腠理不固한 때에 外感風寒, 風熱, 風濕之邪를 만나 皮膚에 搏하여 發生한다.

[辨證論治]

初起에 皮膚가 突然 瘙痒하고 긁으면 붉어지면서 크고 작은 隆起된 風團이 皮面에 나타나는데 色은 澤鮮紅, 淺紅, 粉紅 등이고 혹은 中央에 白色이 있고 얽혀서 紅暈을 이룬다. 瘙痒, 灼熱感이 있고 搔抓후에 疹塊가 增大되거나 融合되어 片을 이루며 疹塊의 數와 모양은 일치하지 않는다. 部位도 정해져 있지 않아 한곳에 局限되어 있거나 全身에 걸쳐서 있고 重한 者는 頭面의 浮腫이 뚜렷하다. 皮疹은 시간이 지나면 自然히 消退되고 痕迹은 남지 않으나 또 再發하는데 重者는 아무때나 發生한다. 慢性인 것은 發作이 계속되어 數個月 혹은 數年에 동안 낫지 않는데 小兒에서는 많지 않다.

急性 發作期에는 發熱, 惡寒, 頭痛, 厭食, 惡心, 嘔吐, 혹 胸悶 呼吸不暢, 脘腹疼痛, 大便溏泄 등을 隋伴한다.

이외에 丘疹性蕁麻疹이라는 것이 있는데 兒童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皮膚病으로 蕁麻疹의 한 類型으로 認識되고 있다. 疹塊은 豆大의 丘疹樣 損傷으로 비교적 堅實하고 中心에 針頭大의 小疱가 있으며 數는 數個에서 數十個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軀幹, 四肢에 散發하고 奇痒을 自覺하며 抓破後 滲水가 흐르고 마른후에는 結痂를 形成 脫落하여 色素沈着이 남는다. 일반적인 病程은 10日前後이고 抓破後 恒상 感染으로 인해 膿疱가 形成되고 反復發作이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된 후 管理를 잘 하면 낫는다.

癩疹의 成因은 주로 風寒, 風熱之邪의 外受로 因한 것이 있고, 風濕이 肌膚에 相搏한 것, 脾胃濕熱이 不得清泄한 것이

있고, 혹은 食滯 蟲積으로 일어난 것 등이 있으니 治法은 一方一法에 拘碍받지 말고 그 病因病機와 症候의 차이에 따라 治療한다.

1. 風勝熱盛證

이 證은 赤疹에 해당된다. 疹塊가 紅色이고 疥熱作痒하고 熱로 인해 發作하거나 심해지고 바람이 불고 시원하면 輕減되거나 消失된다. 全身症狀으로는 惡風微熱, 口渴心煩, 舌紅苔薄黃, 脈浮數을 隋伴할 수 있다. 消風散을 加減하여 쓴다. 荊芥, 防風, 牛蒡子, 蟬衣는 祛風하며, 苦蔘, 生石膏, 知母, 生地, 丹皮, 連翹, 生草(生甘草)은 清熱한다.

2. 風寒外襲證

疹塊의 色이 澤淡紅하고 혹 中央은 白色이면서 周圍는 紅暈하다. 風寒으로 因해 일어나므로 陰雨寒冷하면 發作하거나 심해지고, 따뜻한 環境이거나 옷을 입으면 輕減하거나 消失한다. 惡寒畏風, 口不渴을 自覺하고, 苔多薄白, 脈浮緩하다. 治法은 疏風散寒한다. 麻黃湯 혹 桂枝湯을 加減하여 쓴다. 常用藥은 麻黃, 桂枝, 白芍, 羌活, 獨活, 荊芥, 防風, 生薑, 炙甘草(炙甘草), 紅棗 등이다.

3. 風濕相搏證

風濕이 肌膚에 相搏한 것이므로 丘疹性疹塊가 되고 頂端에 小水疱가 있으며 搔破出水한다. 만약 毒邪를 感受하면 化膿腫痛, 黃水淋漓, 苔白, 脈濡하고 兒童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治法으로 疏風祛濕하고 羌活勝濕湯을 加減하여 쓴다. 羌活, 獨活, 荊芥, 防風, 浮萍, 蒼耳子, 茯苓, 薏苡仁, 車前子, 澤瀉, 甘草 등 藥物을 쓴다.

4. 蟲積傷脾證

患兒 往往 身體消瘦하고 面黃 或白斑이

있고 때때로 臍周圍에 疼痛이 있고 偏嗜食하며 睡眠中에 이를 간다. 大便檢査에서 항상 寄生蟲卵이 있다. 治法은 祛風驅蟲하니 化蟲丸에 荊芥, 防風, 蟬衣등을 加하여 쓴다.

5. 氣血兩虛證

이 證은 癩疹이 反復發作하여 오랜동안 낫지 않으므로써 氣血耗傷하고 衛表不固해진 所致이다. 患兒의 體質이 虛弱하여 얼굴에 華色이 적고 神疲無力하고 風寒에 자주 感한즉 發作이 일어난다. 舌淡苔薄白, 脈弱無力하다. 治法은 養血和營, 補氣固表, 兼以祛風하니 當歸飲子, 玉屏風散을 加減하여 쓴다. 生黃芪, 黨參, 茯苓, 白朮, 當歸, 熟地, 首烏, 白蒺藜, 荊芥, 防風, 炙草, 大棗 등의 藥物을 쓴다.

III. 考察

小兒癩疹은 皮膚에 紅色 혹은 白色의 隆起性 癢痒性的 疹塊가 出現하는 것으로 突然 發生하였다가 迅速하게 消失되고 消退後 痕迹이 남지 않는 것을 臨床特徵으로 하는 過敏性 皮膚疾患으로서 疹塊가 時隱時現하기 때문에 癩疹이라고 하고 일부는 慢性的으로 反復發作하여 數個月에서 數年에 걸쳐 나타난다.²³⁻³⁰⁾

原因으로는 風邪^{12,13,14,20)}, 風寒¹²⁾, 冷濕^{12,14)}, 風熱^{15,17,22)}, 寒^{12,13)}, 飲食物^{2,23,26,28)}, 藥物^{2,28)}, 寄生蟲^{2,23,26-30)} 등의 外因과 皮膚虛弱¹²⁾, 肌中熱^{12,14)}, 胃氣虛¹⁵⁾, 氣血虛^{23,27-30)}, 腸胃濕熱²⁷⁻²⁹⁾, 稟賦不足^{23,24,26,29,30)} 등의 體質의인 要因을 들 수 있다.

巢¹²⁾는 皮膚가 虛한데 風邪가 所折하면 隱疹이 生하고, 또한 邪氣가 皮膚에 客한데 다시 風寒을 만나 相折하므로써 風瘙

隱疹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風瘙隱疹은 다시 赤疹과 白疹으로 區分하여 赤疹은 涼濕이 肌中極熱에 折하여 熱結한 것이고, 白疹은 風氣가 肌中熱에 折하여 熱과 風이 相搏한 것이라 하였다. 특히 小兒가 땀을 흘려 옷을 벗으므로써 風이 腠理에 入하여 血氣와 相搏하고 結聚되기 때문에 隱疹이 生하며, 이외에도 陽氣外虛하면 多汗하는데 汗出時 바람을 쐬어 風氣가 肌肉에 搏하여 熱氣와 鬱結되므로써 風痞癩가 生한다고 하였다.

한편 孫¹³⁾은 風邪가 肌中에 客한즉 肌虛해져 眞氣가 發散되고, 또는 寒이 皮膚에 搏하여 腠理로 外發하고 毫毛를 열어 淫氣가 妄行하기 때문이라 하였고, 王¹⁸⁾은 熱이 血分에 搏하여 그 邪가 表에 并發하기 때문에 赤이 되고, 만일 風濕이 氣分을 搏한즉 氣液不行으로 邪가 表에 并發하면 白이 된다고 하여 巢와 孫이 언급한 赤疹과 白疹의 病理機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朱¹⁵⁾ 등은 斑은 風熱에 屬하며 痰을 끼고 나타나는 것으로 안으로부터 밖으로 發하는 것이고, 內傷斑은 胃氣極虛로 一身之火가 外에 遊行하는 所致이며, 發斑은 傷寒痰熱之病이 外에 發한 것이다. 疹은 熱과 痰에 屬하며 肺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癩疹은 대부분 脾에 屬하며 兼風, 兼溫, 兼火化의 차이가 있다 하여 斑, 疹, 癩疹을 각각 비교하였다.

李¹⁶⁾는 斑疹은 火에 屬하는데 斑은 三焦無根之火이고 疹은 心火로서 위로 肺를 侵犯하는 것은 같다고 하였고, 한편 陳²¹⁾은 밖으로 掀腫하는 것은 少陽相火에 屬하며 癩이라 하고, 그중 紅赤色인 것은 胃熱이고 紫黑色인 것은 胃爛이며, 紅點이 皮膚之內에서 發하되 不出한 것

은 少陰君火에 屬하는 것으로 疹이라 하니 이것은 無根失守之火가 胸中에 모여 肺를 上蒸한 것이고, 隱疹은 주로 脾에 屬한다고 하여 癩, 疹, 隱疹의 原因을 相火, 君火, 脾로 보았다.

吳²⁰⁾는 肌表虛弱으로 땀이 난 후 腠理 疏開하거나 露睡乘冷하여 風邪를 感受한 때문이며, 日間에 瘙痒이 甚한 것은 風重에 屬하고 夜間에 甚한 것은 血虛에 屬한다 하여 肌表虛弱과 風邪 이외에 血虛을 內因으로 들고 있다.

張¹⁷⁾은 風熱外感에 의한 證이라 하였고, 虞¹⁹⁾ 등은 內經에서 “少陰所至爲癩疹”이라 한 것을 引用하여 君火의 有餘 즉 心火의 太過가 肺金을 燒燬하여 肺가 主하는 皮膚之間에 나타나는 것이 癩疹이고, 혹 傷寒溫熱病으로 나타나는 것은 發斑으로 모두 熱毒의 所致인데 모두 겨울이 춥지 않고 도리어 따뜻하여 사람이 不正之氣를 받아 春夏에 이르러 나타나는 것으로 斑爛이 되며, 溫病에 너무 빨리 下之하여 熱氣가 乘虛入胃하였거나 너무 늦게 下之하여 熱病이 胃中에 鬱積하였거나, 醫者가 熱藥을 過多 誤用하면 胃氣 熱甚하여 內傷熱病에 이르면 虛火가 肺之間에 燔灼하니 모두 發斑을 이룬다고 하여 心火, 熱毒을 原因으로 보았다.

朱²³⁾는 內因은 주로 稟賦不足, 氣血虛弱, 正氣失固이고 外因은 虛邪賊風의 侵犯으로서 飲食不節이나 생선, 새우, 매운 음식, 膏粱厚味 등의 섭취 혹은 蟲積, 異味, 粉塵의 接觸 등으로 인하여 營衛不和하고 腠理不固한데 風邪를 感受하여 肌膚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하였다.

中醫外科學²⁸⁾에서는 肌膚에 濕이 있는데다 風熱이나 風寒을 감수하여 營衛不和하거나 腸胃濕熱한데 風邪를 感하여

안으로 疏泄치 못하고 밖으로 透達치 못하여 皮毛, 腠理之間에 鬱하여 發生하거나 또는 衝任不調로 營血이 不足해지고 肝腎이 濡養하지 못하여 生風生燥하므로써 風燥가 肌膚를 막아 肌膚의 所養이 失調하였거나 혹은 腸에 寄生蟲이 있거나 생선, 게, 새우, 약물 등의 섭취로 濕熱이 內生하여 肌膚에 머물러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中醫兒科學³⁰⁾에서는 稟賦不耐가 基本原因이고 過敏 反應에 의한 臟腑氣血의 機能失調가 밀접한 關係가 있으며, 臟腑氣血의 기능이 失調되는 原因은 飲食不節, 생선, 게, 새우, 蛋白質, 乳製品 등을 먹거나 某種의 藥物服用, 腸寄生蟲의 感染 등으로 因하여 脾胃之氣가 通達宣行치 못하여 營衛가 失和된 경우, 生物藥品의 注射, 動物의 皮毛에 接觸되는 등의 外部刺戟으로 營衛가 失和된 경우에 腠理不固하여 外感風寒, 風熱, 風濕之邪를 만나 皮膚에 搏하여 發生한다고 하였다.

漢方外科²⁾에서는 內因은 消化器障礙, 食物中毒, 寄生蟲, 婦人生殖器障礙, 神經衰弱, 내분비 ฮอร์โมน의 障礙 등이며, 外因으로는 곤충에 물렸을 때, 약제, 꽃가루, 먼지, 악취 등에서 起因된다고 하였으며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하여 西醫學的인 原因을 爲主로 記述하였다.

症狀를 살펴보면 巢¹²⁾는 寒이 많은 즉 색이 붉고, 風이 많은 즉 색이 희며, 甚한 것은 가렵고 아프며 긁으면 瘡을 이루며, 赤疹은 得天熱한 즉 심해지고 冷을 취하면 없어지며 白疹은 得天陰雨한 즉 심해지고 風中에 나가도 심해지고 得晴暖한 즉 없어지고 옷을 입어 몸을 따뜻하게 해도 나아진다. 脈은 浮하면서 洪하

니 浮는 風이고 洪은 氣強으로 風氣가 相搏하니 隱疹이 나타나 몸이 가렵다고 하였고, 또한 小兒의 風瘙隱疹候에서는 風氣가 腠理의 浮淺한 곳에 머물러 其勢 微하므로 不腫不痛하고 단지 隱疹瘙癢한 다고 하였다.

朱¹⁵⁾는 皮膚之間에 隱隱하게 나타나고 發한즉 가렵고 혹 不仁하니 兼風, 兼溫의 差異가 있으며 色이 붉은 것은 兼火化한 것이고, 斑이란 色點은 있고 頭粒이 없는 것이 隨出即收하고 收則又出하는 것이라 하였다.

李¹⁶⁾는 “斑은 錦紋과 같은 것이 掀發하는 것으로 色痕은 있으나 頭粒이 없고 重한 것은 붉은 錦繡와 같고 片을 이루며 胸腹에 多發하고, 疹은 隱隱하게 皮膚가 가렵고 腫痛은 없는 것이다. 疹에 頭粒이 있고 粟米나 모기 물린 자국과 같이 微紅한 것으로 隨出隨沒 或沒而又出하며 皮膚表分에서 隱隱히 欲出不出하되 瘙癢만 있고 腫痛이 전혀 없는 것을 癩疹이라 한다. 또한 斑疹이 赤色으로 身煖하면서 胸腹에서 四肢로 번지는 것은 吉하고, 黑色이면서 身凉하고 四肢에서 入腹하는 者는 죽는다하여 預後에 대해 더욱 具體的으로 說明하였다.

虞¹⁹⁾는 皮膚之間에 손톱모양의 紅點이 나타나는 것 혹 비단무늬와 같은 것이 있고 陽脈浮數하고 陰脈實大한 것은 溫毒이라 하고, 或 內外에 熱結이 極甚하여 舌卷焦黑, 鼻若煙煤, 狂言見鬼, 面赤하면서 斑爛하는 것은 陽毒이라 하며 赤斑이 나타나면 半生半死하고, 黑斑이 나타나면 九死一生한다고 하였다.

陳²¹⁾은 掀腫하며 面部, 背部, 四肢에 稠密하게 나타나고 色은 비단무늬와 같은 것은 癩이고, 皮膚之間에 紅點이 나타나

되 胸腹, 手足에 드물게 나며 은은하게 小疹을 이룬 것으로 그 모양이 모기나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은 것은 疹이고, 皮膚之間에 隱隱하게 나타나 몹시 가렵고 붉지 않은 것은 癩疹이라 하였다.

吳²⁰⁾는 初起에 皮膚가 가렵고 연이어 疙瘩이 發生하여 누에콩과 같이 평평한 모양이 되고 여러개가 모여 片을 이룬다 하였고, 孫¹³⁾은 赤疹이라는 것은 모기에 물린 것과 같은 것이 갑자기 나타나고 煩癢하며 甚한 것은 두드러져 隆起되고 굵으면 더욱 일어난다. 또한 白疹도 이와 같다. 赤疹은 熱時即發하고 冷即止한다. 白疹은 날씨가 陰冷한 즉 發한다고 하였다.

中醫外科學²⁸⁾ 등에서는 發病이 갑작스럽고 身體의 어느 부위에서든 局限性的 風團이 발생하는데 작은 것은 참깨만하고 큰 것은 누에콩만하며 혹 鮮紅色으로 혹 淡黃白色으로 風團의 數는 靑을수록 커지면서 많아지고 融合되어 環狀, 地圖狀 등 各種 形狀을 이루는데, 眼瞼, 口脣 등 組織이 성긴 곳에 나타나는 것은 浮腫이 아주 뚜렷하여 이것을 血管神經性 水腫이라 한다. 皮疹은 몇시간후 迅速하게 消退하며 痕迹을 남기지 않고 후에 또 다시 나타나는 것을 反復하다가 一歲前後에 消失된다. 다만 일부는 慢性的으로 反復發作하여 數個月에서 數年에 걸쳐 나타난다. 극심한 瘙癢이나 灼熱感을 自覺한다고 하였다.

治法을 살펴보면 朱¹²⁾는 斑은 屬風熱挾痰하여 나타나는 것이므로 通聖散을 加減하여 微汗散之하되 下之하면 안되고, 內傷斑은 補陰하여 火를 내리고, 發斑은 傷寒痰熱之病이므로 微汗散之하되 下之시키는 것은 도리가 아니며, 疹은 淸肺火

하면서 降痰하고 혹은 出汗解散하거나 下之시킬 수 있고, 隱疹에서 兼火化한 것은 黃瓜水에 伏龍肝을 섞어 바르면 紅斑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孫¹³⁾은 白疹에 礬白 끓인 汁을 바르거나 蒴藿를 끓인 것에 술을 조금 넣어 沐浴하거나 石楠 끓인 汁으로 닦아주면 效果가 있고 나머지는 治丹方法과 같다고 하였으며, 張¹⁷⁾은 風熱外感에 의한 證이므로 脈浮而身熱하고 表證이 있는 것은 散風邪를 爲主로 하고, 脈浮而數한 것은 祛風과 清熱을 兼하고, 脈沈滑하면서 表證이 없는 것은 清火를 爲主로 하며, 脈浮沈而俱滑數하면서 表裏證이 보이는 것은 表裏雙解之한다 하였고, 또한 이 證은 小兒에게 많으므로 表裏虛實을 잘 살피서 治療하되 小兒는 脆弱하므로 安裏藥을 多用하고 攻發藥는 적게 써야 하니 秘則微泄之, 結則微導之하여 邪氣가 壅滯되지 않고 散之케 되면 證이 쉽게 輕해져 小兒가 스스로 安靜된다고 하여 小兒의 治療시 주의사항을 提示하고 있다.

李¹⁶⁾는 外因에 의한 것은 解肌微汗하고, 內因에 의한 것으로 脾胃虛者는 大補로 其火를 내리고 身壯者는 清肺하여 化其痰하며 또한 安裏藥을 多用하되 發表藥은 少用한다고 하여 張과 一致되는 意見을 보이고 있다.

虞¹⁹⁾는 治法으로 化斑湯(人蔘白虎湯), 升麻葛根湯, 玄蔘升麻湯, 黑膏, 黑奴丸 등을 쓰는 것이 正治法이라 하여 주로 火, 熱에 대한 治療을 제시하였고, 吳²⁰⁾는 日間に 瘙痒이甚한 것은 風重에 屬하므로 秦艽牛蒡湯을 服用하고 夜間に甚한 것은 血虛에 屬하므로 當歸飴子을 服用하며 風冷을 避하도록 하였으며, 李²²⁾는 外感斑이 未透일 때 升麻玄蔘湯으로 發之

하고, 已透한 것은 人蔘化斑湯으로 清之하고, 內傷發斑은 調中益氣湯으로 斂之하고, 風熱發疹은 消風百解散으로 散之하고, 疹毒未解인 것은 鼠粘子湯으로 清之하며, 脾家風濕發疹인 것은 伏龍肝散을 黃瓜水로 調服한다고 하였다.

陳²¹⁾은 小兒의 斑疹은 마땅히 證候와 陰陽을 나누어야 하고 癩에는 消癩青黛飲, 疹에는 理中湯을 쓰고, 斑疹이 나타난 후 吐瀉가 있는 것은 함부로 吐瀉를 멎게 하지 말아야 하니 毒氣가 上下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中氣를 調節함이 마땅하며 만일 吐瀉後 遍身發熱하고 斑이 錦紋과 같이 나타나는 것은 熱氣가 虛를 따라 胃로 入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여름에 특히 많고 化斑湯을 쓰며, 隱疹은 加味羌活散을 쓴다 하여 斑疹과 吐瀉의 關係와 治法을 說明하였다.

朱²³⁾는 祛風散邪, 除濕止痒, 養血和營하며 過敏反應을 誘發하는 因子를 積極의으로 찾아서 病因治療을 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하였고, 曹²⁴⁾는 風熱型과 風寒型으로 나누었는데 風寒型은 疏風, 解表, 止痒하니 荊防敗毒散을 加減하여 쓰고, 風熱型은 疏風, 清熱, 止痒하니 消風散을 쓰되, 寒暖의 調節에 注意하고 손으로 긁어서 感染되지 않도록 하며 또한 發病原因을 찾고, 刺戟性 飮食物을 먹지 못하게 豫防과 管理에 관해 說明하고 있다.

中醫外科學²⁹⁾에서는 風熱型, 風寒型, 腸胃濕熱型, 衝任不調型, 氣血兩虛型으로 區分하였는데 風熱型은 祛風清熱利濕하니 消風散을 加減하고, 風寒型은 祛風散寒 調和營衛해야 하므로 桂枝湯을 加味한다. 한편 腸胃濕熱型인 것은 祛風解表, 通腑泄熱해야 하니 防風通聖散과 茵陳蒿湯을 合方하여 加減하고, 衝任不調型은

調攝衝任, 調補氣血해야 하므로 四物湯과 二仙湯을 合方하여 쓴다. 氣血兩虛型은 調補氣血하므로 八珍湯을 쓴다.

中醫兒科學³⁰⁾에서는 風勝熱盛證은 祛風清熱하고, 風寒外襲證은 祛風散寒하고, 風濕相搏證은 疏風祛濕하고, 蟲積傷脾證은 祛風驅蟲하고, 氣血兩虛證은 養血和營補氣固表 兼祛風한다 하여 消風散, 麻黃湯 或 桂枝湯, 羌活勝濕湯, 化蟲丸, 當歸飲子나 玉屏風散을 加減하여 各各 使用한다고 하였다.

治法을 綜合해보면 크게 赤疹인 風熱型과 白疹인 風寒型이 있고 小兒의 體質이 虛弱하거나 오랜 反復發作으로 氣血耗傷된 氣血兩虛型으로 나눌 수 있으며, 各各 疏風清熱, 疏風散寒, 調補氣血 兼祛風한다. 治方으로는 風熱型에 消風散, 風寒型에 桂枝湯, 氣血兩虛型에는 當歸飲子나 八珍湯을 쓰고 이외에도 升麻葛根湯, 防風通聖散, 化斑湯, 補中益氣湯 등을 證에 따라 加減하여 應用한다.

한다.

3. 治法으로는 크게 風寒型, 風熱型, 氣血兩虛型으로 辨證되는데 各各 疏風散寒, 疏風清熱, 調補氣血 兼祛風한다. 治方으로는 風寒型에 桂枝湯, 麻黃湯 등을 쓰고, 風熱型에는 防風通聖散, 消風散 등을 쓰며, 氣血兩虛型에는 八珍湯, 當歸飲子, 玉屏風散 등을 使用한다.

IV. 結論

1. 小兒癩疹은 皮膚之間에 隱隱하게 나타나 多痒 或不仁하는 것으로, 突然發生하고 迅速消退하며 消退後 痕迹이 남지 않는 臨床特徵을 가지고 時隱時現을 反復하는 過敏性 皮膚疾患이다.
2. 原因으로는 風, 寒, 風熱, 風寒, 冷濕, 飲食物, 寄生蟲 등의 外因이 있고 胃氣極虛, 皮膚虛, 肌中熱, 氣血兩虛, 腸胃濕熱 등의 內因이 있는데 이는 小兒의 稟賦不足을 基本으로 外因과 內因이 相關作用하므로써 癩疹을 誘發

參考文獻

1. 丁奎萬：東醫小兒科學，서울，杏林出版社，1990，pp.569~570.
2. 蔡炳允：漢方外科，서울，高文社，1989，pp.311~312.
3. 金定濟：診療要鑑，서울，東洋醫學研究院，1974，p.403.
4. 丁茶山：丁茶山小兒科秘方，서울，杏林出版社，1982，pp.146~149.
5. 楊禮壽：醫林撮要，서울，黑潮社，1968，pp.99~101.
6. 대한피부과학회：皮膚科學，서울，麗文閣，1986，pp.104~108.
7. 홍창익：小兒科學，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1993，pp.614~615.
8. 金英信：清肌散 및 清肌散加味方의 抗 알레르기와 免疫反應에 대한 實驗的 研究，서울，慶熙大學校 大學院，博士學位論文，1990.
9. 李廷淑：加味清心蓮子飲 煎湯液이 抗 Allergy反應과 Mouse의 免疫細胞機能에 미치는 影響，大田大學校 大學院，碩士學位論文，1993.
10. 朴恩貞：小兒癩疹에 관한 文獻的 考察，大韓韓醫學會誌 第10卷 第2號，1989，pp.194~210.
11. 王冰：黃帝內經素問今釋，서울，成輔社，1983，p.288.
12. 巢元方：巢氏諸病源候總論(中國醫學大系2)，서울，驪江出版社，1988，p.569,769,899.
13. 孫思邈：千金要方(下)，서울，杏林出版社，pp.809~811.
14. 吳錫인：聖濟總錄，서울，翰成社，pp.85~104.
15. 朱震亨：丹溪心法，台北，五洲出版社，1981.
16. 李梴：醫學入門，서울，大星出版社，1990，卷2 pp.61~63.
17. 張介賓：景岳全書(中國醫學大系46)，서울，驪江出版社，1988，p.325.
18. 王肯堂：外科準繩，서울，翰成社，1982，p.432.
19. 虞搏：醫學正傳，서울，成輔社，1986，pp.58~61.
20. 吳謙(浙江中醫學院編)：醫宗金鑑 外科心法要訣 白話解，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pp.89~90.
21. 陳復正：幼幼集成，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8，pp.364~365.
22. 李用粹：證治彙補，台北，旋風出版社，中華民國 65，pp.170~175.
23. 朱生全：小兒百病效驗方，西安，三秦出版社，1992，pp.203~206.
24. 曹旭：兒科證治，西安，陝西科學技術出版社，1982，pp.288~290.
25. 王慶文：中醫兒科臨證備要，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8，pp.311~317.
26. 簫正安：中醫兒科學(中醫精華叢書)，四川科學技術出版社，1991，pp.200~201.
27. 郭振球 外：中國醫學百科全書(中醫兒科學)，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3，pp.89~90.
28. 上海中醫學院：中醫外科學(新編中醫學教材)，香港，商務印書館，1981，pp.105~108.
29. 艾儒棣：中醫外科學(中醫精華叢書)，四川，1991，pp.170~172.
30. 王伯岳，江育仁：中醫兒科學，서울，圖書出版鼎談，1994，pp.646~647.